

[사회]

어린이 폐렴 급증

심한 일교차·건조한 날씨 지속 탓 광주지역 환자 수 평소의 2배나

폐렴 등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광주지역 소아과와 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폐렴 등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 환자나 입원한 환자가 평소보다 적게는 20~30%에서 많게는 50~100%가량 늘었다. 이번 어린이 호흡기 질환의 특징은 합병증이 유발, 중이염과 축농증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병원을 찾는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들 대부분은 생후 6개월~2세의 유아 또는 4~5세의 어린이들로, 폐렴·천식·편도염·후두염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 기독교병원의 경우 70병상의 소아병동 입원실이 모두 꽂았으며, 현재 10~15명의 어린이 호흡기 질환 환자가 응급실에서 입원 대기 중이다. 하루 평균 150~200명인 외래 환자도 최근 280~350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광주시 서구 급효동 우리 아동 소아·청소년과도 현재 입원환자의 70~80%가 5~6세의 어린이 폐렴 환자이며, 외래환자의 대부분도 폐렴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광산구 우산동의 하남산부인과·소아과도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생후 6개월~24개월 된 어린이 환자가 20~30%가 늘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심한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황사 등 탁한 공기로 인해 어린이들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호흡기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기독교병원 소아과 정권(36) 과장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어린이 폐렴의 경우 바이러스성 폐렴과 세균성 폐렴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맛벌이 부부들이 늘면서 놀이방과 유아원 등에서 감염돼 오는 어린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예방을 위해서는 대형 마트 등 사람이 많은 곳을 가급적 피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과 목을 헹구어야 하며, 집안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등 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권일·이은미기자 cki@kwangju.co.kr

이 비 그치면... 5월 무더위

광주·전남 오늘 오후까지 20~50mm 비

광주·전남 지역의 건조한 대기를 적신 비가 1일 낮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 지방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지난달 30일부터 내린 비가 1일 낮 서쪽 지방부터 점차 개겠다"며 "예상 강수량은 20~50mm로 곳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또 지난달 30일 밤을 기해 서해남부 먼바다와 남해서부 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유리 파고 3m 이상), 여수시·해남군·완도군에는 강풍 예비특보(초속 14m 이상)를 발표했다. 특히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1일 낮 최고 기온은 15~18도를 기록해 이른 더위가 한풀 꺾이겠으나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예년 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한나 더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선선한 바람
흐리고 비가 온 후 낮부터 개겠다.

광주	비온뒤 맑	14~16℃
포항	비온뒤 맑	14~16℃
여수	비온뒤 맑	14~17℃
수원	비온뒤 맑	13~16℃
대전	비온뒤 맑	12~16℃
대구	비온뒤 맑	12~18℃
부산	비온뒤 맑	13~17℃
제주	비온뒤 맑	13~16℃
목포	비온뒤 맑	14~17℃
안동	비온뒤 맑	13~17℃
울릉도	비온뒤 맑	14~17℃
독도	비온뒤 맑	13~17℃

5월 1일 (음 3월 15일) ◇ 전국날씨

서울날씨
알바다=남서~북서풍 파고 1.0~2.5m
먼바다=남서~북서풍 파고 2.0~4.0m
남해날씨
알바다=남서~북서풍 파고 2.0~4.0m
먼바다=남서~북서풍 파고 2.0~4.0m
목포 밀물 < 01:30 썰물 < 06:50
> 13:34 > 18:58
여수 밀물 < 08:30 썰물 < 02:26
> 20:56 > 14:32

▲해돋이 05:42 ▲해질 19:17 ▲달돋이 18:23 ▲달질 04:44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수)	3(목)	4(금)	5(토)	6(일)	7(월)
날씨						
최저/최고	10/23	10/25	11/24	14/22	13/22	12/23

초등생 운동선수 74% "폭력 경험"

34.5%가 일주일에 1~2회꼴 맞아

초등학교 고학년 운동선수의 74.3%가 동료나 지도 교사로부터 신체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가 공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연세대 산학협력단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746명 중 74.3%에 해당하는 554명이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폭력을 가한 주체는 지도자가 80.3%, 운동부 선배가 17%였으며 1주당 1~2회 꼴로 폭력당했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많고 1주당 3~4회 가

랑 폭력당하고 있다는 응답도 18.2%나 됐다. 폭력 피해 장소는 주로 운동연습장소(65.1%)였지만 합숙소(15.9%)나 시합장(5.3%)이라는 대답도 적지 않았다.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대답도 14.9%(111명)나 됐다. 피해자는 남학생(16.9%)이 여학생(5.9%)보다 3배 가량 더 많았고 지도자(45%)와 운동부 선배(36.9%)가 가장였다. 평균 수업 참여시간은 '5교시 이상'이라는 응답이 78.2%였지만 '5교시 미만'이라는 답변도 21.8%를 차지했다. /연필뉴스

광산교육청 신설 교육부에 건의키로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광산교육청 신설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서구·남구·광산구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관할하는 서부교육청 업무가 과중해 광산구만 별도 관할할 지역교육청 신설이 필요하다'며 "오는 4일 시교육청을 방문하는 김신일 교육부총리에 대해 광산교육청 신설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구·북구를 관할하는 동부교육청 산하에는 179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8만1천215명이 다니고 있는 반면 서부교육청 산하에는 270

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14만1천314명이 재학 중이다. 특히 광산구는 도·농 복합지역인데다 111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5만9천517명이 다니고 있어 별도의 지역교육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산교육청 부지는 자체적으로 마련하겠지만, 학무국과 관리국 소속 공무원 50여 명의 증원과 관련 예산 반영은 교육부가 해결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광산교육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교육행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파산·희생 지원 변호사단 출범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국종돈)는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시 동구 지산동 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파산·희생 및 소액사건 지원 변호사단' 출범식을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노동절 행사 다채

'제117주년 세계노동절'과 '2007 근로자의 날'을 맞아 광주·전남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한국노총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는 1일 오전 광주시민회관과 장성 흥길동 체육관에서 각각 '2007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태 광주지방노동청장이 참석

해 광주어망 이맹례 반장(동탑 산업 훈장) 등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에서 생산성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자 32명에게 대한 정부 포상을 전달한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제117주년 세계노동절 정선계승 광주·전남 노동

자대회'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한·미 FTA 저지와 광주시청 비정규직 집단 해고 투쟁에 대한 연대결의를 다지기 위해 청사 앞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개회선언·울동공연·소원 글을 담은 머리띠 시정 주변에 묵기 행사 등을 통해 비정규직 해고자 복지를 촉구할 방침이다. 또 집회 후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5·1절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에 참석한다. /오광록기자 kroh@

'李·柳·羅→이·유·나' 표기 강제 위한

"두음법칙 강요 안된다"

'李씨, 柳씨, 羅씨'를 한글맞춤법인 두음법칙에 따라 '이씨, 유씨, 나씨'로 표기하도록 한 대법원 호적 예규는 위헌이며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유모(65·충주시)씨가 '유씨'를 '류씨'로 표기하도록 해 달라달라 낸 호적정정신청 항고심에서 "사건 당사자의 한글 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함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인의

성(姓)은 오랜 기간 형성되고 유지돼 온 일정한 범위의 혈연집단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이름과 함께 개인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고유명사"라며 "국가가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해 '류'가 아닌 '유'로 표기할 것을 강제한다면 개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가 개인의 생활양식의 변경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재판의 주심을 맡은 김동건 판사는 "대법원 예규는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지리산 정규 탐방로

오늘부터 전면 개방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는 입산통제했던 지리산 내 정규 탐방로를 1일부터 전면 개방한다. 통제가 풀리는 구간은 노고단~벽소령~세석~장터목대피소의 주 중 능선을 포함한 19개 노선, 114.4 km이다.

지리산사무소는 지정장소 외 흡연 행위나 인화물질 소지, 산나물 불법 채취, 불법취사·야영행위, 셋길 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지리산사무소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로 산발발생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어서 탐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아름다운 지리산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탐방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7년 10월 28일 시험 확정!!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격 가능

신바람 공인중개사CD 공인중개사 18회 시험 합격 해법!

합격을 책임질 명강의, 명강사!

유명 강사진의 현장 넘치는 강의로 머리에 속속 들어옵니다. 올해는 꼭 자격증을 취득하십시오.

해법1 족집게 강의만이 속성 합격의 지름길!
제 14회 공인중개사 수석 합격 및 노원진 학원장의 명성 그대로 전국최대 합격생을 배출한 복파일이 합격의 책임을 집니다. 해마다 바뀌는 출제경향을 꼭꼭 집어내는 족집게 강사들의 명강의만 모았습시다.

해법2 핵심내용의 반복만이 초심자 합격의 지름길!
40점 과락없이 60점 이상이면 합격! 핵심내용만을 계속 반복하면 수석은 아니더라도 합격은 할 수 있습니다. 비결은 핵심내용의 반복! CD 동영상 강의는 언제라도 이해가 될때까지 반복가능 하습습니다.

해법3 초심자 눈높이 강의만이 교과완정정복의 지름길!
강의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초심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작해서, 눈높이에 맞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강의! 실력이 쑥 올라가면서, 지치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 중고 CD 보낼때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 807-5 기린빌딩 103호 (주)나래디앤피 TEL : 02)392-0972

시간절약, 금전절약의 황금찬스
족집게강의 동영상CD 풀세트 39장

385,000원
126,000원 *교재는 별도

특별사은품
기출문제(12~16회) CD 증정

- 민법 및 민사특별법 CD 7장
- 부동산 공시법 CD 5장
- 부동산학 개론 CD 6장
- 중개법령 및 실무 CD 6장
- 부동산 공법 CD 10장
- 부동산 세법 CD 5장
- 2개월 분의 학원강의 수록
- CD 1강좌 40분 강의
- 1개월이던 완전 마스터 가능
- *교재 필요시 별도 구매 가능

글로벌시대 요즘 뜨고 있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는 필수!!

중국어+일본어+영어=125,000원 ⇒ 99,000원 (교재는 별도)

완전 100% 확률강사의 동영상 강의
신바람 업그레이드 강좌 영어회화

중국어어를 잘하는 방법!
요즘 중국어가 뜨고 있죠?

일본어를 배우려면
9가지의 벽을 넘으면 일본어 끝!

38,000원 *교재는 별도

48,000원 *교재는 별도

39,000원 *교재는 별도

잘 통하는 영어 4가지 비법
비법1 : 내가 필요한 영어부터 습득하라
비법2 : 영어란 영어 (Cluster English)로 익혀라
비법3 : 원어민 (발음, 강세, 억양) 과 동시에 말하라!!
비법4 : 상대편의 문화를 이해할 것

잘 통하는 영어 5단계 프로그램
1단계 : Listening CD강의 내용을 면밀히 듣는다.(5회)
2단계 : Repeating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따라한다.(10회)
3단계 : Simultaneous Language Learning 원어민의 목소리와 동시에 말한다.(10회)
4단계 : Role Playing 상대편과 반말이 가능해진다.(2회)
5단계 : Conversing 외국인 또는 친구와 관련된 내용을 대화한다.(2회)

우선 중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발음과 성조입니다.
성조를 잘하는 방법!!

- * 음운으로 공부하세요.
- * 성조를 음 모음으로 표현해서 크게 말하십시오.
- * 병용과 성조는 충분히 익히십시오.
- * 가능한 성조배율은 1:1로 동영상강의로 개인수업 받으십시오.
- * 자기 발음을 정확하게 체크가 가능해야 합니다.
- * 성조를 배울때는 동영상 강의의 100% 활용하십시오.
- * 아침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성조를 읽으면서 녹음하고 동영상강의 선생님 강의로 교정받으세요.

인터넷 쇼핑몰 www.itsc.com.co.kr NAVER 통합검색 이즈컴 검색

●공급원 : (주)나래디앤피 ●국민은행 / 예금주 : 스미일 / 계좌번호 : 417201-01-145079

24시간 무료상담전화 : 080-466-3030 (일요일, 공휴일 상담가능)

●소자본 개업 가능 ●조기 명예퇴직 · 전직대비 ●여성의 경제적 독립기회 ●고소득 자유 직업